

# 황사 ‘연중 불청객’ 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 최근 10년간 연 평균 봄 5.7차례 가을·겨울 2.6차례  
올해 벌써 3차례 관측… 결막염·비염·기관지 천식 등 유발

황사정보·시민행동요령 SMS 서비스·시청 홈페이지 확인

더 이상 황사는 ‘흙먼지’가 아니다.  
‘우토(雨土)·흙비’라 불리며 삼국시  
대부터 그 기록이 전해져 오는 ‘황사’  
가 중국의 산업화와 함께 ‘증금속  
사’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황사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황사 발생 시 건강 조심 = 황사는 일반적으로 중국과 몽골의 건조지역으로부터 먼지가 바람에 날려오는 현상을 말한다. 주로 3~5월에 북서풍을 타고 실려온 먼지가 하강 기류에 의해 우리나라에 떨어지기 때문에 봄에 자주 관측된다.

광주 지역에는 지난 3월1일 약 200㎍/㎥의 농도의 황사가 관측된 것을 시작으로, 3월달에만 벌써 3차례의 황사가 관측됐다. 올 들어 목포 4차례, 여수 3차례, 진도 5차례 등 전남 지역도 봄의 불청객 황사의 방문에 예외는 아니다.

2일 광주시가 제공한 ‘2008~2011년 연평균 대기 증금속 농도’에 따르면 황사시 대기 증금속의 농도는 평소에 비해 2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아졌다. 농도가 진할 수록 모래 속에 포함된 증금속 자체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중국의 산업지대를 거치며 각종 대기 오염 물질을 흡수하기도 한다.

전남대병원 호흡기내과 권용수 교수는 “황사의 미세 입자로 인해 알레르기성 결막염, 비염, 기관지 천식의 악화가 유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알레르기 비염이나 결막염 환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항히스티민제나 약제, 비강분무제, 흡입제 등 국소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사막화, 황사의 주범 = 황사 관측 일수는 해마다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00년대 연 평균 황사 일수는 9.8일로 1990년대 5.3일, 1980년대 2.9일에 비해 그 수치가 크게 증가했다.

광주도 2000년대 연 평균 황사 일수가 9.1일로, 1990년대 5.9일, 1980년대 4.1일에 비해 시간이 갈 수록 황사가 빈번히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광주지역의 황사 평균 관측 일수는 8.3일로, 이 중 봄철(3~5월)에 관측된 황사 일수 5.7일(69%)를 제외한 나머지 40% 가량은 가을과 겨울철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계절 내내 ‘연중 행사’처럼 황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황사가 심각해지는 원인으로 중국의 사막화를 꼽는다. 최근에는 황사 근원지가 몽골과 국내와 가까운 만주지역까지 확대됐다.

사막화는 식생의 감소로 인한 태양 복사 열의 영향력 증가, 공기의 냉각, 강수량 감소 등의 효과와 맞물려 빠르게 진행되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나무를 심는 원론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국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사막화 현상을 막기 위해 1996년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UNCCD)에 가입한 후 ‘삼북방호림사업’과 ‘황사방지 프로젝트’를 통해 사막에 나무 심기 공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고비사막에 4480km짜리 방풍림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녹색장성(綠色長城, Great Green wall) 공사가 2074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황사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우리나라에서도 사막화 방지를 위한 행동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산림청을 비롯해 ‘현중 미래숲’이나 ‘동북아산림포럼’과 같은 시민단체가 중국 서부지역 및 몽골에 있는 사막을 대상으로 녹화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황사 정보 SMS로 받자 =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1차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황사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홍보하는 한편 황사 관측망 구축, 유해물질 분석 등의 작업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실시되는 2차 황사피해방지 종

합대책에서는 황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 실시 등으로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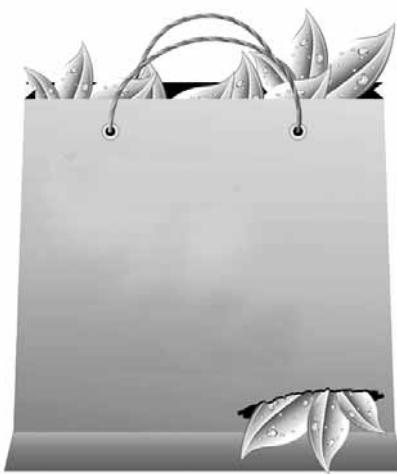
광주시도 ‘불철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황사 발생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요령’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상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황사 발생과 이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기상청의 황사 예보와 특보가 발령되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황사정보 알림서비스에 등록된 시민, 학교, 기업 등에 직접 황사정보와 시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예보와 특보상황, 시민행동요령 등을 시내 전광판과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황사예보 문자 서비스도 제공된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http://hevi.gwangju.go.kr>) 환경오염측정망 중 ‘내기질 정보 SMS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4월 5일 식목일 전국 4000여곳 빵집

## 비닐쇼핑백 X 종이봉투는 O



식목일인 오는 5일, 일부 매장에서 비닐쇼핑백 대신 재활용 소탕백과 종이봉투,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근)는 식목일을 맞아 전국 4000여 곳의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매장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을 제공하지 않는 ‘비닐쇼핑백 없는 날’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는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대신, 봉투를 원하는 고객에게 재활용쇼핑백 등 종이봉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바구니 사용 협조를 부탁하는 포스터를 매장에 부착하고, 매장 내 안내방송과 자사 직원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을 진행해 전국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와 파리바게뜨·뚜레쥬르가 지난해 12월 협약한 ‘1회용 비닐쇼핑백 줄이기 자발적 협약’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협약은 고객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 비닐쇼핑백 사용을 피하고, 반기 1일 이상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날’을 실시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 광주 남구, 친환경급식 2배 이상 늘어

###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 성과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지난 2월말 개소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지원하면서, 한 달 새 남구 지역 학생들의 친환경 식품 섭취율이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식재료 구매실적과 유통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지원내역을 비교한 결과 초등학교는 134%, 중학교는 303%가 늘어났다. 전년 대비 7배 이상 친환경 식재료를 섭취한 학교도 있었다.

남구 관계자는 “이미 친환경식품을 많이 사용했던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친환경식품 사용량이 적었던 중학교에서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사용량이 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국내산 콩으로 만든 전통장류, 남구에서 생산된 밀로 만든 우리밀 가공식품, 지역농가가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해 남구와 인접한 나주·화순에서 생산한 유정란 등 친환경 우수 식재료 총 150여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무등산국립공원 관리협구성

영산강유역환경청(정장 정희석, 이하 영산강 환경청)이 광주시, 전남도, 국립공원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학계·주민·시민단체 대표 등 총 20명이 참여하는 공원관리협의회를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영산강 환경청은 “무등산국립공원 승격에 맞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운영과 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원관리협의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를 통해 공원의 보전·관리, 지역사회 협력사업 발굴, 지역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공원의 보전·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4월 초 협의위원 위촉장 수여 및 ‘무등산국립공원 보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삼희공인중개사

■상가건물전문■  
◆10억부터 50억이상◆  
금매물 본사 당일계약!  
◆경매 진행 중 부동산◆  
(추하나 및! 매입가능)  
◆상속부동산/자분부동산◆  
◆모든부동산 출장가능!

### 매매

\* 서구 치평동 이마트 4차선대로변 5층건물 대지660.3제곱미터(260평) 건 3,047제곱미터(922평) 지하1층/지상5층 / 대출금(24억) / 매매가38억 보증금(5억천만) / 월세 2700만원/관리비별도 실투자금 8억천만/설수익률 연16.5%

\* 동구 문흥동 조선대후문 인근 6층고시원 엘리베이터 대지236제곱미터(71.5평)/도로(14평) 면적67개 건 731제곱미터(221평) / 대출(2억7천만) 매매가4억5천만/ 실투자금 19억천만/ 직영시 수익률 000%

\* 북구 문흥동 6차선대로변지점 1층/지상7층층 건727제곱미터(분양350평) 병원·한의원·독서실·찜질방가능 대출금(6억) / 매매가16억5천만/실투자금 5천만/ 매입후 분할임대시 수익률 000%

임 대  
\* 서구 치평동 신세계백화점 1층 대로변 건330제곱미터(100평) 보3억/월2200만  
\* 서구 치평동 이마트 인근 4층 사무실 건494.49제곱미터(170평)

상가 투자자, 매수자 상담환영  
투자회원도집(약관명)

법률/금융상담/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상이 즐겁습니다.

## 신한공인중개사 신축원룸매매전문

★전대정문 1분 럼 14개 월수의 500만원 매기6억2천  
★전대상대, 농대 1분 럼 14개(상기1개)월수의 500 매기5억9천  
★전대정문1분 럼 21개(주택전환가능) 월수의 750만 매가8억4천만 전면대리석 벽돌시공 (보5천 융 2억5)  
★전대정문 1분 럼 21개(주택전환가능) 월수의 750만 매기8억8천(보5천 융 2억5)  
★상층동 신축원룸 13개 월수의 500만 매기5억9천  
★상층동 원룸 16개 월수의 600만 매기6억9천

### 상층동 역세권 토지매매

운천역 1분 코너 상업지·광동간도로접 820㎡ 매기26억(병원·전시장·도시형)

### 수원지구 상가분양 임대전문

1층~7층 까지(695㎡) 학교·병원·독서실·모든업종가능

수원지구 1층 분양 59㎡

매기3억6천(보3천 월140만)

수원지구 3층 분양 임대 280㎡

매기3억3천(보3천 월180)

### 독서실 급 임대

수원지구 3천세대 모아힐 APT후문

2층 91석 최신식 시설 최고위치

보증금 5천만 월250 시비약간있음

**062)527-7600**

H.P. 010-6670-9800

광주광역시 광주구 수원동(국민은행 LG점자옆)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우선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상가 주 택

▶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 2890㎡ 감정가29억

▶ 무안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편의시설 대지850㎡ 건평 1146㎡ 감정가11억 최저가7억

▶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3억

▶ 무안군 현관면 단독주택 대지660㎡ 건평96㎡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억

### 단독 주 택

▶ 동구 내남동 하남산단내2층공장 토지5940㎡ 건물 6532㎡ 감정가36억 최저가25억

▶ 학평을 정고리 관리지역 양어장및공장 토지14792㎡ 건물4292㎡ 감정가27억 최저가19억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 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나주시 공산면 3층공장 토지29710㎡ 건물1826㎡ 감정가17억3천 최저가8억8천만

### 공장 및 창고

▶ 광산구 안평동 하남산단내2층공장 토지5940㎡ 건물 6532㎡ 감정가36억 최저가25억

▶ 학평을 정고리 관리지역 양어장및공장 토지14792㎡ 건물4292㎡ 감정가27억 최저가19억

▶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 5289㎡ 건물3587㎡ 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 나주시 공산면 3층공장 토지29710㎡ 건물1826㎡ 감정가17억3천 최저가8억8천만

### 토지매매 및 분양=

▶ 광산구 월전동 대지 1000㎡ 매매가 21억8천

▶ 위 토지 현재시점 건축 및 분양작업

▶ 나주혁